

AUTHOR 이광호

TITLE **개혁파 신학의 사회 참여**

-신비의 침묵'을 통한 교훈

IN **진리와 학문의 세계**

12권 (봄, 2005): 153-189.

## 개혁파 신학의 사회참여 - '신비의 침묵'을 통한 교훈 -

이광호(조에성 경신학연구원)

“우리 바벨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채 21-22장에서 그리스도의 최종 파루시아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강림함으로  
에덴 언약을 빼듯한 모든 언약이 완성된다.”

### 개요

교회의 사회참여 방식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 교회는 세속국가와 일반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조직적 개입을 하지 않으며 직분자로서 개별 성도를 포함 마찬가지다. 교회에 속한 성도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아니라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미 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말하고 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로써 이미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성도들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면 달리 조작적인 운동을 펼치지 않아도 사회와 이웃의 고통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

그와는 반대로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성도들 또한 성실한 시민의 모습을 지버리게 될 것이며 세속적 기준에서 마저 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세상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회와 그에 속한 성도들은 성경의 교훈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 [ 1 ]

개혁신학의 특색은 무엇인가? 개혁신학을 논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모두 그 개념이 상이하다. 그 이유는 넓게 보아 전통적 개혁주의 신학을 말하느냐, 아니면 현실적 상황에서 개혁주의를 이해하려 하느냐는 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필자는 개혁주의 신학을 보편 이성(普遍理性)의 절대성을 거부하는 신학, 그리고 특정 시대나 사회적 정황에 근거한 신학을 거부하는 신학으로 정의한다. 즉 구속사적 성경해석원리를 중시하는 개혁주의자들의 정신에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근거(sola scriptura)하는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은 지구 위에서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주님의 품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역시 다른 인간들처럼 특정 국가에 속해 있으면서 땅을 밟고 생활하며 살아간다. 성도가 주변 이웃들 보다 강하고 부유할 수도 있으며 그와는 정반대되는 형편에 놓일 수도 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교회 안의 성도들 상호 간에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교회는 그런 환경 가운데 존재하면서 세상과 세속국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회에 참여하며 살아야 할지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우리가 이 문제를 논하면서 우선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점은 교회의 조직적인 참여와 교회에 속한 개인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의 참여가 분리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개인은 이 세상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정부분 편연적으로 참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것이 개인 성도의 일상생활의 표현이나 아니면 조직으로서 사회에 참여해야 할 교회의 본분이나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사회참여를 위한 대상으로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다. 정치구조 개선, 경제정의 실현, 일반 윤리실천 운동, 사회복지 확대, 사회적 구제사업, 봉사활동 등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각 경우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입장에서 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참여해야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존재한다. 이는 지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이나 성도들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렇다. 우리는 그 문제에 접근하면서 일반적인 비교를 통해 결말을 지으려 하거나 상대적 개념을 도입하여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진리가 아니라 일반 윤리를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 시대에 편승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2) 그렇다면 성도의 사회참여 범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할

1) 개별 성도는 국가에 속한 시민인데 반해,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데 존재하면서 세상과 세속국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회에 참여하며 살아야 할지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2) 이광호, “종교적 윤리화로 인한 한국교회의 위기”, 월간목회, 2004. 8, pp.140-159.

까? 지금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참여에 대해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 계통의 신학적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교회의 조직적인 참여에 적극적이다.

이는 정치분야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대해서 그렇다.<sup>3)</sup> 복음주의 영향을 띤 보수주의 교회를 역

시 교회의 조직적 참여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sup>4)</sup> 그러나 그들은 정치나 경제문제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즉 그들은 '세상의 변화'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사회에 참여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그 근거는 인간의 보편이성이나 사회적 정황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사회참여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과 그에 대한 경향성과 더불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사회참여와 그에 대한 가르침들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에 접근해 가고자 한다. 교회가 말씀에 대한 해석에 앞서 현실적 여건에 성급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와 성도들은 시대에 반응하는 것이

3) 이는 한국 자유주의 계통의 교회들이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1968년 옮설라 대회 이후 교회의 조직적인 사회참여에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4) 한국 신(新)보수주의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나 존 스토프트(John Stott)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복음주의적 경향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달리 화란이나 영국과 같은 기독교적 성향의 국가를 배경으로 한 교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시대적 정황에 의한 주장을 우리처럼 전형적인 세속국가에 속한 성도들에게 직접 도입하여 적용하는데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광호,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회와 사회참여", 교회를 위한 신학적 관심들, 조에성경신학연구원, 2004(제판), pp.287-291. 참조.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시대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 [ II ]

우리가 사회참여를 논할 때 '사회'는 교회 밖을 의미하며 교회 밖의 영역은 곧 세상을 일컫는다(고전5:12, 13. 참조). 우리는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 세상의 속성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한다. 세상이 인간들의 삶을 누리는 영역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공간이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며 구속사적 특별한 목적을 두고 있느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sup>5)</sup> 즉 이 세상은 천국의 침노의 대상(마11:12. 참조)이며, 천국과 세상은 상호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아니라 대립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그 경계가 명확함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회참여에 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성경말씀과 사도교회의 입장을 배경으로 삼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사회참여를 했는지 살펴보아 그들의 삶과 교훈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즉 성경에서 가르치는 윤리가 교회의 윤리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교회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5) 성경에는 전반적으로 지구가 인간들의 삶을 누리도록 선물로 제공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허락된 특별한 공간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8,9장에서는 특히 지구와 그 안에 거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조직이 사회참여를 한다는 의미는 직분적 참여 를 뜻하며, 개별 성도가 현실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직분 자로서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참여한다는 뜻이다. 교회 의 직분적 참여 범위는 ‘복음전파’와 ‘교회적 구제’<sup>6)</sup>와 관련된 영역이다. 이는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분상 상호 연관된 개념이다. 이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도 행전 6:1-6에서는 ‘봉사’를 의미하는 이 두 개념에 대해 동일한 헬라어 단어 ‘διακονία’가 조화롭게 쓰이고 있다. 사도행전 6:1의 ‘매일 구제(봉사)’에서는 ‘τῇ διακονίᾳ τῇ καθημερινῇ’가 쓰이며, 6:4의 ‘말씀의 봉사’는 ‘τῇ διακονίᾳ τῷ λόγῳ’로 쓰이고 있다. 이 ‘봉사’는 단순히 남에게 무엇을 베푸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봄 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봉사가 되어야 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봉사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적 운동이 아니며 나아가 외부를 향한 일반적 의미에서의 사회 참여적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니다.<sup>7)</sup> 즉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외부적 문제들에 대한 조직적 운동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며,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나 빈민구제 등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본연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자체이다. 교 회의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명은 곧 그것

인 것이다. 지상 교회에 속해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개별적인 삶 가운데서 이웃을 돌아보며 긍휼을 베푸는 것은 중요하지만 원리상 부차적인 것이다. 교회의 사회참여에 대한 입장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교회와 세상 사이의 분리, 둘째, 교회와 세상의 조화, 셋째, 교회와 세상의 일치이다. 일부 극단적 근본주의자들<sup>8)</sup>은 첫 번째의 경우로 교회와 세상 사이의 분리를 주장한다. 한편 복음주의자들은 교회와 세상과의 조직적인 조화를 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들의 세속국가에 관한 입장은 대개 서구의 기독교적 국가에 관한 시대적 입장에 근거한다.<sup>9)</sup> 한편 자유주의자들은 8) 근본주의는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위협하면 말에 생성되어 1910년대 미국에서 구체화 된 것으로 본다.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의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의 통정녀 탄생, 십자가상의 대속적 죽음, 몸의 부활, 신체적 승천 등 이직을 믿고 고백한다. 그러나 펠자가 여기서 말하는 극단적 근본주의자를 이런 사회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군입대 거부, 수혈금지, 국가공무원 임용거부, 일 반선거 참여거부 등 반사회적 윤리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일컬는다.

9) 예를 들어 Abraham Kuyper의 국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 가의 영 역은 하나님의 위엄 아래 서는 것이다. 따라서 그 영역에 있 어서 하나님에 대한 독립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의 영역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는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으면 인신 다”(Abraham Kuyper, Calvinism, 칼빈주의, 서울: 새종문화사, 1991. p.137). “한편 정부는 교회에 요구한 점을 자신도 역시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곧 양심의 자유가 모든 사람들의 본원적인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을 모든 시민 개개인에게 깨닫게 하고 또한 적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Abraham Kuyper, 같은 책, 142); 그리고 1974년에 선포된 로잔언약 제9항, ‘자유와 페박(Freedom and persecution)에서는 국가에 대해 ”모든 정부는 교회를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평화와 정의와 자유의 상태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6) 펠자가 여기서 ‘교회적 구제’라 함은 교회적 구제는 일반 구제활동과는 달리 구분되는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즉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라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병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7) 김의환, “사회참여, 이렇게 하자” 월간 목회, 2004.8, pp.41,42. 참조.

교회와 세상의 일치를 추구하려 한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의 세 견해 모두를 비판없이 수용할 수 없다.

지상의 교회들은 항상 상이한 시대, 상이한 문화, 상이한 생활수준, 상이한 국가이념 가운데 존재하는 특성을 지나고 있다. 만일 각 시대의 형편에 따라 상이한 처신을 한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를 시대적 배경에 따라 인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상대주의적 해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바는 다양한 시대, 다양한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동일한 교훈을 소유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대와 세속적 가치를 뛰어넘어 국가나 사회에 대한 동일한 견해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나간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많은 교회들이 상이한 자세를 가지고 사회에 참여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보다는 시대적 환경에 더욱 민감한 보편성이성을 그 근거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와 관련된 교회사 속의 형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도들이 생존했던 시대의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회참여란 사치스런 용어밖에 되지 않았다. 로마제국의 박해와 법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기독교인의 조건에서 일반적인 정치참여란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정치적 저항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살아가는 기난한 성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박해받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참여했으며,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도 이웃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AD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부터 교회의 급속한 세속화가 시작된다. 그 후 392년 레오도시우스 황제의 국교화 선언 이후 교회는 서서히 배도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와 비견되는 교회의 유배와 다름없다. 중세의 경건한 성도들 가운데는 그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국가는 물론 세속화된 당시의 조직 교회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것이 점차 수도원 운동으로 발전해 가게 된다. 중세의 역사적 수도원 운동에서는 비성경적인 측면이 많이 드러난다. 수도원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일반 사회 참여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교회의 정치참여를 비롯한 모든 사회참여로부터 자유로운 위치를 고수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삶의 형태는 그것 자체로서 국가와 사회에 참여 적 모습을 띠게 된다. 즉 그들은 의도성이 없었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사회참여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당시 로마 교회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수도원 운동을 하는 자들의 사회 단절은 중세 종교개혁자들로 하여금 성경에 근거한 새로운 신앙정신을 요구하였다. 루터나 칼빈, 콜뱅글리 등은 나름대로 사회참여를 강조한 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참여는 세속국가에 속한 교회의 적극적 참여는 아니었다. 도리어 신정국가 혹은 신정정치의 영역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적극적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를 비롯한 이교도 정권인 비기독교 국가들은 불법집단이 되고 만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

사회 참여했던 것이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신앙적 국가체계와의 분리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므로 신정국가 형태의 조직사회 가운데서 교회의 사회 참여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 관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사회 참여 문제는 결국 개인의 정의감과 선행이 합쳐진 결과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종교적 선행과 연관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선행에 관하여'에서는 교회 및 성도의 사회적 삶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10)</sup> 인간의 모든 선행은 그리스도로 인한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공로 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영생과 연관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회에 대한 참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일반적인 축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일

이 아닌 것이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인간의 행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sup>11)</sup> 또한 벨직 고백서 역시 그와 동일하다. 벨직 고백서, 제24장에서는 '인간의 성화와 선행'에 관한 고백을 하면서 모든 인간의 선행은 그 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sup>12)</sup> 그러므로 이러한 성도의 선행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세속사회를 윤리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것과 연결지어질 수 없는 것이다.

성도의 선행과 불신자와의 선행이 외형상 그 모습이나 목적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 성격과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이는 성도의 선행은 자의적 판단과 행동에서 나올 수 없으며 믿음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열매임을 말하고 있다. 만일 일반적 개념의 선행이 기독교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선행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갈빈은 성도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성도의 머리 속에서 두 가지 해독, 즉 행위의 의를 믿는 것과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뽑아버려야

<sup>10)</sup>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16장 '선행에 대하여' 중 중요한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항> 선행은 사람에 의해 성경의 중거 없이 맹목적인 열심이나 어떤 선한 의도를 가루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회에 대한 참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일반적인 축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일

<sup>11)</sup>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91항 (문) '선행 일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만 행하는 일이 선택입니다.'

<sup>12)</sup> 벨직고백서, 제24장, '인간의 성화와 선행': "...우리를 의롭게 하 는 데 있어 이 선행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의롭다 칭호를 받는 것은 선을 행하기 전일지도 모르겠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행(先行)되거나 아니어서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선할 수 없는 테, 그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 자체가 우선 좋아야 만 하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결코 그것으로 공적을 쌓기 위함이 아니다..."

한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부터 향기를  
얻어내지 않는다면, 교인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모두 하  
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긴다고 가로침으로써 항상 자신을  
신뢰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sup>13)</sup> 이는 성도의  
사회 참여는 소위 사회적 정의감을 비탕으로 한 인간의 삶  
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III]

18,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해 인간사회에  
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그런 국가·기술·제재  
한 교회들은 사회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된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화가 일어났으며, 전통적 귀족계  
급과는 상이한 산업을 근간으로 한 불평등 사회의 대두,  
그에 따른 상대적 빈곤, 노동과 인권 문제 등 전통사회에  
서는 있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런 현상은 점차 다른 서구사회들에 파급되었으며 결국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직면하게 된 교회와 성도들은 그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반응을 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해 19세기 말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비록 일반 사회주의 이  
론과 동일한 맥락에서의 기독교 이론이 확립된 것은 아니  
지만 인간화를 배경으로 한 교회의 ‘민주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일어난 것이다. 19세기 미국에서도 산업혁명을 통  
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부

음’<sup>14)</sup>이라는 일종의 기독교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 운동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와 노동문제에 집약된 성격  
을 띠었다.

교회는 그러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서구 기독교인들 사이에 팽배하게 된다. 그와 때  
를 같이 하여 세계적인 기독교 회의들이 연이어 회집되며  
서 교회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했다. 1910년 에든버러  
(Edinburgh), 1928년 예루살렘(Jerusalem), 1938년 마드리스  
(Madras), 1958년 가나(Ghana)에서 세계의 교회 지도자를  
이 모여 변화하는 세계 가운데서 교회의 선교적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논의 된 것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두  
차례의 세계적인 전쟁을 경험한 인간들은 더욱 심각한 위  
기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의 선교적 역  
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표출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전의 전통사회와는 전  
혀 다른 특이한 시대이다. 전통적 가치 규범이 무너지고  
다원주의, 상대주의, 해체주의, 개성주의 등의 사고 위에  
불변의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현대사상 속에 힘들된 것이다. 세상의 그런 풍조 가운데  
서 교회 역시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침내 성경을 문해함으로  
써 진리를 적극적으로 해체하기에 이른다.

한편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들은

13) J. Calvin, Inst. vol.III.14.16.

14) 사회복음주의 운동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미국에서 일어  
났는데 사회변혁을 통해 구원을 가져오려는 운동이다. 라우센부쉬  
(Walter Rauschen Busch)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 인간을 구원하  
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유기체를 구원하는 데 있다”고 주  
장한다.

산업혁명을 주도한 서구사회 뿐 아니라 제3세계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것은 추로 정치, 경제문제와 관련된 인권문제 및 삶의 기본권과 연관된 내용들이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다양한 신학을 배경으로 한 기독교의 이름으로 체계화 된다. 그中最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티에레즈(Gutierrez)가 중심이 된 남미의 해방신학 운동이다. 해방신학은 사회정의, 경제정의, 인간해방을 철저히 주장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추구했다. 그 외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정치신학, 한국의 민중신학, 아프리카 대륙의 흑인신학, 전 세계적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 예상신학 등 실로 다양한 기독교 인본주의 행동신학들이 참여신학의 모습으로 세계 도처에 등장하게 된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통적인 전도개념이 1960년대 이후로 행동을 요구하는 사회 참여적 선교개념으로 크게 바뀌게 된 것이다.

이는 1968년 WCC 옥살라 대회에서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옥살라 대회의 제2분과 보고서인 ‘선교의 재신’에는 사회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사상<sup>15)</sup>을 토대로 한 ‘새로운 인간화’였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인간성을 강조함으로써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보다는 억압받고 고통받는 소외된 자들의 인권과 인간성 자체의 회복에 관심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참여신학의 경향은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북유럽의 계통의 교회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휘튼(Wheaton) 선교대회(1966)에서는 복음의 전인성을 강조하며 사회의 소외되고 교통받는 이웃을 향한 복음선교의 책임을 천명하였다. 그 후 복음주의 교회들은 싱가폴(Singapore)에서 개최된 아시아·남태평양 전도대회(1968),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에서 개최된 전미주 전도대회(1969)에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콜롬비아 보고타(Bogota)에서 있었던 복음주의자들의 라틴 아메리카 전도대회(1969)에서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고 오직 영혼 구원만 강조하는 교회는 ‘진정한 성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고 진술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1973년 시카고에서 있은 복음주의 집회에서 “복음주의적 사회관심”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복음의 전인성에 기반한 복음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사회문제 참여를 촉구하였다. 자유주의 계열의 행동적 참여신학과 복음주의 계열의 사회적 관심은 결국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신학적 논쟁거리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것이 1974년 빌리 그레厄姆(Billy Graham)과 존 스토프(John Stott)가 주도한 로잔 세계복음화 대회(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를 통해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을 탄생케 했다.<sup>16)</sup> 그것은

16)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은 1974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던 150여개국에서 참여한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의 대표 3,700여명이 존 스토프가 초안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협의한 것이다. 그 중 제5항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다.

[제5항]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Christian social responsibility)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창조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 하시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인종, 종교, 피부빛,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15) 이광호, “Missio Dei 사상 비판”, 세계선교의 새로운 과제들,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8, pp.131-137.

이전의 전통적인 선교인 복음전파의 개념 위에 사회참여에 관한 의미를 가미한 것이다. 즉 로잔언약은 복음전파와 사회참여를 동시에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 한 선언을 하게 되었다. 로잔언약은 '복음 전도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진술을 담고 있던 것이다.<sup>17)</sup> 즉 그들은 지금까지 교회가 사회의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영혼구원만 강조하는 폐쇄적이고 이원론적인 태도가 있었음을 회개하고 복음의 전인성에 기반한 종체적인 복음선포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로잔언약 제5장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그들이 인용한 성경본문

사람이 타고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서로 존경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누구나 착취당해지는 안된다. 이 점을 우리는 동한시하여 왔고, 또는 왕왕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상 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데 대하여 참회한다.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며, 사회 행동이 곧 전도는 아니며, 정치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가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 한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는 다같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교리, 우리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필수적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종류의 소외와 암昧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 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부정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것을 공박하는 일을 무서워하는 안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 이면 그의 나래에 다시 태어난다(증생함을 받는다).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전파 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종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는 것 이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17:26,31, 찰 18:25, 사1:17, 시45:7, 창1:26,27, 약3:9, 2:14-26, 요3:3,5, 마5:20; 6:33, 고후3:18, 약2:20)

17) J.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한화통·정우배 역, 서울:IVP, 1993, p.431.

발씀들(행17:26,31, 창1:26,27, 사1:17, 시45:7, 창1:26,27, 약3:9, 력19:18, 루6:27,35, 약2:14-26, 요3:3,5, 마5:20; 6:33, 고후3:18, 약2:20)은 대체적으로 잘못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본문들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본문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잔언약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관심을 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로잔언약은 외 헝적으로 복음전도가 사회참여보다 우선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 의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결국 사회참여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선언은 전체 기독교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로잔에서 정의된 선교에 대한 논의는 그 후 파사데나(Pasadena) 회의(1977), 월로우 뱅크(Willowbank) 회의(1978), 글렌 에이리(Glen Eyrie) 회의(1978), 호테스頓(Hoddesdon) 회의(1980), 패타야(Pattaya) 회의(1980),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 회의(1982년), 서울(Seoul) 회의(1984), 오슬로(Oslo) 회의(1985), 싱가폴(Singapore) 청년지도자 회의(1988), 홍콩(Hong Kong) 회의(1988) 등에서 지지를 받았으며, 1989년 마닐라(Manila)에서 열린 로잔Ⅱ에서는 1974년의 로잔선언을 확실하게 재확인했다.<sup>18)</sup> 로잔Ⅱ에서 선언된 "The Manila Manifesto"에서는 21개 확인조항 가운데 1974년 로잔언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제1항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된다.<sup>19)</sup> 물론 전체적인 내용들 가운데

18) J. Stott, (ed), *Making Christ Known, Historic Mission Documents from the Lausanne Movement 1974-1989*, London: Paternoster Press, 1996; 위에 언급된 1974년 이후 개최된 여러 차례의 국제적 회의들은 LCWEL(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가 공식적인 후원을 통해 개최한 모임들이다.

는 기본적 고백들과 함께 사회참여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1항을 '로잔언약을 확인하는데 활용함으로써 그회의 성격과 의미를 명확히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로잔언약을 배경으로 한 세계적인 대회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금년에도 '2004 세계 로잔대회'(2004 Forum for World Evangelization)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태국에서 열렸다.<sup>20)</sup> 이번 대회에서도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을 재확인함으로써 교회가 세계적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유지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20세기 막바지에 이르면서 전에 없던 풍요를 경험하게 된 교회들은 인권문제에서 점차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것은 이전의 기본 생존권의 문제에서 삶의 질의 문제로 이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교회는 급격한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면서 교회성장이론과 함께 그에 대해 더욱 민감한 반응을 하게 된다. 결국 각 교회들이 경쟁하듯 복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에 들어선 한국 교회들은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 선교원, 노인대학 등을 교회 내부에 설립함으로써 교회성장의 방편으로 이용하거나 그것 자체를

교회의 사명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나아가 장애인, 독거 노인, 외국인 균로자, 탈북자 등 사회의 소외계층 지원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회의 존재의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런 활동들은 교회가 조직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과 할 수 없다. 사회복지 활동과 참여에 대한 정통적 기독교 입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첫째는 복지활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성도들이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방면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국가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교회에 연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가에 대한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일반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에는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의 연약한 이웃을 위한 구제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복지 국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의 시민들에게 정책에 따라 그것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그 책무를 담당하면서 전체 국가적으로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종교적 목적을 가짐으로써 순수성이 절여되기 쉬울 뿐 아니라 천체적으로 공정할 수 없다. 즉 소수의 주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편파성을 탈피할 수 없으며 또 다른 소외된 자들을 양산할 위험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둘째는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성도들의 개별적인 관심이다. 즉 조직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불우 시설이나 소외된 이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형편에 따라 개정과 봉사의 적극적 참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성기는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19) The Twenty-One Affirmations of the Manila Manifesto, (1) "We affirm our continuing to the Lausanne Covenant as the basis of our cooperation in the Lausanne movements".

20) LCWE(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sm)가 주최한 태국 '2004 Forum for World Evangelization'에는 115개국으로부터 1500여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The Whole Church taking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라는 기치아래 31개 분과토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했다.

것이다.

#### [IV]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모든 의미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부터 찾는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벗어난 영원한 의미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께 공극적인 뜻을 이룩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 지역을 위해 이 세상에서 활동하신 주님으로부터 천상의 진리와 세상의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하는 성경 속의 예수님은 국가제도와 구조 개선을 위한 참여를 하신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나 운동을 전개하신 적이 없다. 그는 사회복지, 빈민구제 운동에 참여하시지 않았으며 제자들에게 그런 참여를 요구하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지셨는가? 이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게 위한 조직적 운동을 전개하거나 참여하신 적이 없다. 나아가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해서서도 우리는 본래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것은 병자들을 낫게 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 목적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가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비난을 당했어야 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2-9에 기록된 베네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 를 고친 사건을 생각해 보자. 예수님께서 그 병자 한 사람을 치유했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다른 병자들도 그와 같이 치유방기를 소원했을 것이다. 더구나 돈이나 큰 노력이 들지 않고 그냥 헌마디 말씀만으로 중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시아)가 단 한 사람만 고치고 그 자리를 떴을 때 그를 향한 다른 병자들의 원성이 얼마나 커졌을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것 자체를 의미로 삼지 않았으셨다. 고통 중에 있는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언하시는 것이 그의 일차적인 목적이었던 것이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점칠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sup>21)</sup>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제와 치유 및 사회복지 차원의 일 자체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병원이나 학교를 세워 병자들을 치유할 계획을 세우거나 교육 계몽운동을 전개하지도 않았다.<sup>22)</sup> 물론 가난한 자들과 빙든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과

21)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나 오령이어의 기적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의 죽은 가족이 살아나기를 기대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 서운함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오령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그를 왕으로 옹립하고 자했던 사실과 그렇게 되지 않아 실망했던 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

22) 근대 이후 선교분야에서는 병원설립을 통한 의료사업이나 일반 교육사업을 중요한 선교적 방편으로 삼아왔다. 정우에 따르서는 그 자체가 선교의 목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조직적 사업이 아니라 Para-Church Movements의 일환으로서 개별 성도들의 참여를 통해 전개해 나가야 할 일들이다.

부와 고아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타난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구약성경에 계시된 주님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드러내는 방편인 메시아 사역으로 이해 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왕국의 궁극적 회복에 있었으며 그것을 언약의 백성을 가운데 선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계셨으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란 세상적인 의미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의미와 방법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다. 그 나라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로마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것에 대한 문제해결이나 조직적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세속정부와 주님의 나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선포하셨다. 즉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분리하셨던 것이다(마22:20,21; 막12:16,17; 뉘20:24,25).

예수님의 국가에 대한 가르침은 명확하다. 그는 로마제국의 실체를 인정하셨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도록 요구하셨다. 즉 로마제국을 하나님의 나라에 종속시키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동시에 그는 세속국가를 단순히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칼을 맡긴 실체로 인정하셨다. 이는 시민들이 납세하는 세금과도 연관되는

문제이다. 그것은 국가가, 시민사회와 질서유지와 더불어 역사 가운데서 자기백성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치권으로서 일반은총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속정부와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의한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침묵 하셨다. 그렇지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내부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음을 보게 된다.

한편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등 공직자들과 다양한 신분의 시민들이 함께 살았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신 나라와 직분자들이 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가운데 누구를 본으로 삼아야 할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삶과 교훈의 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 그룹이 아닌 선지자들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경제, 사회의 불의를 지적하며 투쟁했던 사실을 알고 있다. 엘리야,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등 여러 선지자들이 그랬다. 그러나 그들이 문제에 직면해 참여하고 저항했던 국가는 일반 국가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였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구약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을 역시 민족 가운데서 이웃을 기억하며 살아야 했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 구제, 봉사 등의 의미가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단순한 치원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확립과 연관된 가운데서 설명되어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민족의 공평한 삶을 추구해야 했다. 그들의 십일조는 민족내부를 위한 것이며

외부국가와 이방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주변의 암문이나 모압 등 이방 민족의 생활형편에 대해 직접적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위나 제사장의 직분은 개인적 삶의 만족을 위해선가 아니라 메시아를 배태한 민족의 의미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정치에 참여한 예들이 대체서는 우리가 현실국가나 사회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그것은 도리어 오늘날 교회 혹은 기독교에 적용해 야할 내용들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 특수한 몇몇 인물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세속정부의 통치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이다. 우리는 그러한 몇몇 경우를 일반적인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 등의 공직자로서 특수한 직임을 맡았던 것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아 그 이방국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였다. 즉 그것은 구속사적 의미와 절부되어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신약시대의 사도를 또한 그와 동일한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사도들은 로마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불의 및 불평등에 대해 일절 저지하거나 투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과 함께 개선을 요구한다. 그들은 로마제국의 문제들에 대해 지극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며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성도들간 사랑의 봉사와 구제를

요구하며 모든 성도가 기본적으로 공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요구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란 단순히 가진 자가 빈곤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자기 의를 세우는 선심성 배려를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교회적 구제란 복음과 더불어 성도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로마제국에 대한 사도교회의 자세와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 교훈은 초대교회와 그 이후 시대의 교회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도시대 교회는 불의한 세속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복지 를 포함한 조직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도와 성도들이 불의한 로마제국의 칼에 생명을 잃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 모진 고통을 받았다. 비단 기독교인 이 아니어도 삶의 고통을 당하는 많은 억울한 약자들이 있었다. 로마제국은 한마디로 정의와 공평이 없는 악한 정부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제국의 불의와 부당한 제도에 항거 하기는커녕 아무런 조직적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반 성도들이 그런 것과 관련된 개별적 참여를 하지 않았음을 끝이다.

당시 로마제국에는 사회적으로 악한 제도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노예제도였다. 그러나 교회는 로마제국의 악한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지 않았으며 도리어 그것을 옹호하는 듯한 기록이 나온다 (딤전6:1; 벤전2:18 참조). 나아가 그런 불의한 로마제국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가르치며(롬13:1), 그렇게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교회가 세속국가에 대해 저항

하지나 그들의 악법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님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독재정권이나 불의한 정부라 할지라도 그 통치권은 인간의 안정된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sup>23)</sup> 그들이 가진 문제는 교회가 직접 관여하여 해결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서 구속사적 원리 속에서 관련본문들을 이해해야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24)</sup>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을 기억해야 한다(사9:16,17). 그것은 천체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관심이 고아와 과부를 위로하고 돋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제적인 회복과 온전함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므로 우리는 그와 관련된 말씀을 구속사적 원리와 더불어 신학적 통합성 가운데서 이해해야 한다. 그 말씀은 일반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주축이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시대의 교회 가운데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고아와 과부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의미가 가진 자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부분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면 교회와 그에 속한 성도들에 관한 전제적인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강자는 약자에게 베풀어야

하며 고아나 과부와 같은 약자는 가진 자들에게 베풀 것 없이 항상 받는 자의 입장에 머물러도 되는 것처럼 해석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약자들은 점차적으로 가진 자, 능력있는 자가 되어 나중에는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와 관련된 말씀은 비단 가진 자, 힘있는 자 뿐 아니라 ‘간힌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등 모든 약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개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강자와 가진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것을 강자 중심의 말씀으로 간주한다면 교회내에서도 능력을 기준으로 한 ‘힘의 쏠림 현상’을 피할 길 없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잘못된 축복관으로 이어지게 된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민족 내의 형편을 두고 말한다. 당시 주변의 국가들인 앗시리아,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고아와 과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말하기 어렵다. 또한 암몬, 모압, 에돔족 등을 염두에 둔 것도 아니다. 신약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 할 때 로마제국 전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을 염두에 둔 교훈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눈앞에 벌어지는 불신자들의 고통을 외면 하라는 의미가 아님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3) J. Calvin, Commentary, Rom13:1. 참조.

24) 이와 관련된 본문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이라 할만한 몇몇 본문들은 다음과 같다: 출애굽기22:21; 신령기14:29; 24:21; 26:12; 27:19; 예레미야7:6; 스가랴7:10; 마가복음12:40; 누가복음 20:47; 디모데전서5:16; 야고보서1:27 등.

그리므로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구제에 관한 문제는 교회가 미땅히 감당해야 할 교회론적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확대 적용할 내용은 아니다. 즉 그것은 단순히 기난한 이웃을 구제하여 돋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생계에 대한 극심한 차이가 없는 평균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교회적 구제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보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삶을 공평케 하는 것을 말한다.<sup>25)</sup> 이는 초기 사도교회에 요구된 재산을 공유하는 원리(행2:43-47, 참조)와 직접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품된 교회를 세움과 관련이 있다.

또한 예수님이 간힌 자를 해방시켰다는 의미 역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일반적 원리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께서는 그를 구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숨기게 땅에 당한다. 그러나 그는 옥중 서신에서 자신의 구출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제기나 서운함을 표시하지도 않는다. 당시 로마 제국은 많은 성도들을 부당하게 구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시대 교회는 그에 대해 아무런 저항운동을 하지 않은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사도바울은 “오직 유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노라”(빌3:20)고 천명하고 있다. 그가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깨(히11:13; 벨전1:1)으로서 세상이 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마5:13-16)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일반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다.<sup>26)</sup>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위의 사도바울의

말과 함께 생각해 볼 때, 천국에 시민권을 둔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존재임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리를 상실한 채 세상의 주인노릇을 하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교회는 생명을 소유한 진정한 빛과 소금이다. 즉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이 없으므로 인간들이 삶의 의미를 살피는 실한 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당시 로마제국의 실장부인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경복하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롬13:1)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바울 당시 로마제국의 정세(AD40-60년대)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도미티안 황제 당시의 정세(AD80-90년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서를 쓸 당시는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비교적 멀었던 시기였다. AD40년대 후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행18:2, 참조)와 AD64년 로마의 대화재로 인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으나 그것은 기독교 전반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지역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AD80년대 도미티안 황제 때 가 되면 로마제국과 기독교 사이에는 생명을 담보로 한 원수지간이 된다. 그 때는 기독교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정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부당하게 죽이는 그 악한 정부와 위정자들에게도 교회가 순복해야 하는가? 로마서 13:1의 말씀이 바울 당시에는 효력이 있었지만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서 그 교훈도

25) J. Calvin, Commentary, Act6:1. 참조.

26) J. Calvin, Commentary, Matthew5:14. 참조; 이광호, “종교적 윤리화로 인한 한국교회의 위기”, 월간 목회, 2004. 8, p.153.

달라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의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여러 국가들이나 과거 무신론을 주창하면 공산주의 국가 정부들에 까지 성도들은 순복해야 하는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악한 정부의 권력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는 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정책이나 불의한 정권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질서를 유지하는 배경으로서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회와 성도가 부당한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정부 실체를 인정하는 근거가 바로 거기 있다. 성도들이 위정자의 권력에 순복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일반 국가들에 힘을 막기셨다는 사실과 상통한다. 우리가 여기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국가의 의무가 교회나 성도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가는 시민질서를 유지하며 권력을 통해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막는 일반운동의 하나로서 허락된 특별한 제도인 것이다.

우리는 신약성경 속의 '신비의 침묵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신비의 침묵을 보여주는 국치의 사건이다. 고통증인 십자가상의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음성까지도 주변에 들릴 만큼 조용한 '신비의 고요'가 잔인한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거기 모인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의 '신비의 침묵'을 의미한다.

로마제국의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한 비겁한 자들이었는가? 오늘날 세속적 정의감에 찬 우리 같았으면 그 앞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다. 죄없는 분을,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감히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던졌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로마군인들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는 '신비의 고요'와 '신비의 침묵'이 있었을 따름이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던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술한 사건들을 잘 알고 있다. 세례요한은 옥고 끝에 처참하게 사형을 당해 죽었다. 범죄한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경우보다 처참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성도들은 물론, 세례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부당한 법 적용을 통해 스승을 끔찍한 방법으로 사형에 처한 악한 세력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지 그리 오래지 않아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테판이 둘에 맞아죽는 처형을 당하게 된다. 우리는 스테판이 죽을 만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다. 그 사실을 당시의 교회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당한 세력에 대해 아무런 저항운동을 하지 않는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저항 운동은 커녕 사회적 입장에서 본다면 마땅히 가해야만 할 것 같은 정당한 비판조차 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주님과 교회를 팜박하는 자들을 배도자로 규정해 비판했지만, 사회적 견지에서 취합된 언어적 행동이

목하던 당시의 성도들은 정의감을 상실하고 불의와 악함 한 자들인가? 그들은 죄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나 집단적 저항운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떠나 교회를 팝박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다.

AD64년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부당하게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당시의 교회와 성숙한 성도들은 그들을 향해 다른 칼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 후 신약성경의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은 어울하게 뱃모섬으로 유배된다. 로마제국이 부당한 이유로 노년의 사도를 외딴 섬에 유배했는데 교회는 철저하게 침묵한다. 교회는 물론 어느 교인도 그를 구출하기 위한 노력이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AD 70년을 앞둔 몇 년 동안 있었던 유대지역에서의 시민전쟁과 그 시기 전 세계에 흘어져 있던 기독교 회의 행동을 높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AD66년에서 70년 사이 유대지역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졌다. 그런 판국에서도 당시 교회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침묵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때 흘어져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거두어 그들의 생계를 도왔던 것에 비해, 이스라엘이 민족 독립을 위한 피나는 전쟁을 치를 때 교회는 아무런 자금도 지원하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 교회는 침묵했다. 많은 유대인들이 충성을 다해 전장에 나가 생명을 잊고 신체를 상했을 것이다. 그 여파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가정을 잃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럴 때 교회는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인가? 당시의 교회들은 한결같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으며 그 전쟁에 가담하지 않았

다. 교회가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하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다른 방법의 봉사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는 없었던가!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아 교회의 일반 성도를 가운데 그 시민전쟁에 참여하거나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이 전혀 없다. 우리는 과연 당시의 교회를 비난할 것인가? 그렇다면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던가?

## [V]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다른 것을 복음의 내용으로 삼거나 복음전파의 직접적인 방편으로 삼지 않는다.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히4:12) 스스로 일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교회는 시대의 변화나 현상에 따라 그 원리를 절정하는 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며 그 행 편을 파악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회참여 문제는 결코 시대에 편승하거나 의존하지 않는다. 1968년 옮실라 대회부터 본격화되며 시작한 Missio Dei 사상이나 1974년의 로잔선언 등은 시대적 상황에 의한 것으로 전통적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학자들은 그것을 신학의 발전으로 보느냐 아니면 일반 사회적 영향에 의한 결과로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도 한다. 필자는 그것을 신학의 발전으로 보지 않으며 교회가 세속의 영향에 의한 반동적 자세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그것이 설령 좋은 의도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결정이 우리에

개 사회참여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에서 그 모든 근거를 찾게 될 때다. 교회는 바깥 즉 세상을 향해 조직적 사회참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sup>27)</sup> 교회는, 아직 교회 밖에 있는 미지의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는 일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즉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품된 교회의 운전함을 추구하며, 교회 밖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가운데 숨어 있을 미지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진 채 자비의 자세를 견지 하며 살아간다.

27) 최근들어 한국의 진보교단들 뿐 아니라 보수교단들까지 적극적 사회참여를 시도하고 있음은 우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국부적으로 이슈가 되어있는 국가보안법 철폐문제를 두고 기독교 내부에서 찬반이 팽팽하다. 보수주의를 자칭하는 장로교 고신파·합동측에서는 지난 가을(2004) 종회에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보안법 철폐 반대선언을 했으며, 기독교 장로회와 감리교 등에서는 보안법 철폐 지지선언을 했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자연)는 지난 10월 4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비성기도회'를 열어 '기도회'란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결기대회'를 열었으며, 그 자리에는 태국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내걸고 반면 북한의 인공기를 소각하는 폐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에큐메니컬 진영 기독교 NGO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기독교인 모임'을 결성해 2004년 10월 4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서울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 십자가를 앞세우고 왕복 사위행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10월 15일)에는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 실천협의회 등 20여개 기독교 단체들과 관련 교회 목사들이 모여 '국가 보안법 폐지 기독교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그들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보안법은 명예한 악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교회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러한 사회참여적 선언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동일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정반대의 선언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원리적 측면에서 보아 절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곧 교회가 정치적 사회참여를 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이유중 하나이다.

우리 시대는 규범이 없는 개별적 이성주의의 시대이다.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교회 역시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보다는 기독교적 상식, 즉 이성의 상식을 통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려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속의 정치, 경제, 사회에 묻혀 살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들을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현실이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그 문제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된다. 다각적인 정치 문제와 경제 구조문제, 사회적 이슈와 삶의 불균형, 그리고 윤리의 파괴 등 실제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 있다. 교회가 그런 문제에 조직적인 참여를 하다 보면 사회문제의 기본이 되는 소외계층, 노동력 차취 등을 비롯해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더,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문제 등 새롭게 양산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까지 관심을 넓혀 결국 그것을 교회의 중심 영역에 들 위험이 따르게 된다. 그러한 참여행위는 결국 교회들마다 상이한 판단과 적용을 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지게 하는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본질은 점차 해손될 수밖에 없으며 종교적 형식화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사회참여 방식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매우 특이하다. 교회는 세속국가와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조직적 개입을 하지 않으며 직분자로서의 개별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다. 이를 자칫 오해하면 마치 교회의 사회참여가 단순히 소극적인 양 판단할 우려가 있다. 그

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도리어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의한 사회참여가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고 요구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순종함으로써 사회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교회는 존재 그 자체로서 이미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잘 이해해야 한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로서 이미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성도들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면 달리 조직적인 운동을 펼치지 않아도 사회와 이웃의 고통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성도들 또한 성실한 시민의 모습을 버리게 될 것이며 세속적 기준에서 마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세상에 그런 부정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sup>28)</sup>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바는, 말씀과 성례를 통한 교회 안에서의 적극적 참여가 곧 성도의 사회참여의 중요 한 영역이 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교회 안에서의 적극적 참여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다는 자기 열성적 차원과는 다르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의 원리대로 하게 되면 사회 참여에 대

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적극성이 결여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개혁파 신학의 일반적인 사회참여는 교회 조직이 의도적인 계획에 따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한 성도들의 개별적인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는 신약성경 가운데 소개된 교회와 성도들의 '선비한 침묵'을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참여도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교회가 세속국가의 명예나 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킬 때 그것이 마치 '누룩'처럼 스며들어 세상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데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sup>29)</sup>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요구하는 바 교회 속의 신실한 삶을 살 때 교회는 편중되지 않은 자연스런 사회참여를 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복음의 능력이 훨씬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sup>30)</sup>(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개혁학술제 발표논문, 2004.10.26)

28) J. Calvin, *Commentary, Matthew 5:14*; 칼빈은 마태복음 5:14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라는 구절을 주석하면서 교회와 성도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 보이는 삶을 살게됨을 지적한다.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수록 그가 못된 짓을 하면 그 비행이 미치는 영향이 그 만큼 심각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다.

29) 이광호, *성경에 나타난 성도의 사회참여*, 대구: 도서출판 실로암, 1992(재판), pp50,51.